

왜관의 구청다완(求請茶碗)과 고려다완(高麗茶碗)의 분류에 관한 연구

권영은*

| 목 차 |

- I. 서론
- II. 구청과 구청다완
- III. 고려다완의 분류
- IV. 결론

| 국문초록 |

구청(求請)이란 일본에서 세전선을 보낼 때 특정 물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마도가 조선과 맺은 전통적인 외교관계에 근거하여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바쿠후(幕府) 등이 필요한 물품을 조선에서 조달해 가던 무역 방식의 하나이다. 기유약조(己酉約條) 체결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구청이 발생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진상(進上), 회사(回賜), 공무(公貿) 이외에 별도로 물품을 요청하는 일을 가리켜 구청이라 한다. 일본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을 대마도가 간절히 요청하면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가능한 것은 허락하였다.

* 동명대학교 글로벌인문콘텐츠학과 석사 졸업, 한국차문화전문학원 대표 /
dmsgood1@naver.com

이에 조선 측에서는 구청을 증급(贈給) 혹은 증물(贈物)이라고도 불렀다.

왜인의 각종 구청에 관한 내용을 동래부사,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狀啓)와 이에 관한 호조(戶曹) 및 비변사(備邊司)의 회답을 기록한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과 『변례집요(變例集要)』 등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유약조 체결 이후 일본은 다완(茶碗) 공급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선에 구청(求請)하였다. 신해년(1611) 2월, 굴지정(橘智正)이 무역 담당자로 왔고 구청 물목에 김해 장인을 특정해 다기(茶器), 보아(浦兒), 와기(瓦器) 등을 구청하였다는 내용이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에 기록되어 있고, 같은 해 3월에 『변례집요(變例集要)』에 왜인이 서계(書契)를 지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조선에서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김해부사에게 부탁하여 도자기 장인에게 만들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다완(茶碗) 구청의 근거와 요구 주체에 관한 내용은 경진년(1640) 5월 19일에 역관 홍희남(洪喜男)과 김근행(金謹行)의 수본 등서(手本謄書)와 같은 해 10월 18일에 동래부사의 장계(狀啓)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왜관(倭館)의 개요(開窯)는 바쿠후의 쇼군(將軍) 이하 다이묘(大名)들이 간절히 구청하고 대마도주가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마도주가 참근교대(參勤交代)를 위해 에도(江戶)로 갈 때 쇼군을 비롯한 바쿠후의 유력층에게 진상하기 위한 용도와 바쿠후 측의 의뢰나 지시를 받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이처럼 일본에서 서계를 지참하여 동래부로 구청하면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다완이 제작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자기(瓷器)의 시작은 임진왜란 때 피랍된 조선인 이삼평(李參平)에 의해 1616년 백자(白瓷)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자기의 흐름 중 청자(靑瓷)가 빠져있다. 청자에서 분청사기로 이어지며 발전했던 분청자기의 다양한 기법과 연질백자에서 경질백자로 진화하는 과정에 나타났던 유약 조성과 환원 소성 등 다양한 기법들이 생략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서는 조선 도공에 의해 자기의 생산이 가능했지만 와비차(わび茶)의 정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민요(民窯)에서 생산되었던 독창성·대담함·자유분방함을 가진 조선 사발(沙鉢)을 왜관을 통하여 다시 찾고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1639년~1677년까지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에서, 1678년~1717년까지 초량왜관(草梁倭館)에 가마를 만들어 번조(煔造) 하였다.

이처럼 왜관에서는 구청에 의한 자기를 생산했다. 일본에서 견본이 오거나 주

문서에 치수 등을 명시해 주문했기 때문에 왜관에서 생산된 다완을 일반적으로 어본다완(御本茶碗)이라 부른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구청에 의해 제작된 다완이기 때문에 ‘구청다완(求請茶碗)’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이후 이 시기 김해와 왜관에서 생산되었던 다완의 성격에는 구청다완이라 부르며, 왜관에서 생산된 다완명에는 어본다완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초기 와비차의 성립 과정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완명에 의한 고려다완의 분류를 도자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분류하였다.

주제어: 고려다완, 구청다완, 어본다완, 조선사발, 초량왜관.

I. 서론

고려다완(高麗茶碗)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사발 중 일본으로 전래되어 가루차를 저어 마시는 행위인 점다(點茶)의 필수 도구(茶具)가 된 조선의 사발을 말한다. 일본에 전래된 고려다완으로는 고려시대의 청자는 손에 꼽을 몇 작품이며 대부분 조선시대의 분청자기(粉靑瓷器)와 연질백자(軟質白瓷), 경질백자(硬質白瓷) 등으로 제작되었다. 고려다완은 조선 사발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와비차(わび茶)의 도구로 전용된 전용다완(轉用茶碗)과 기유약조(己酉約條 1609) 이후 일본에서 서계(書契)를 보내와 조선 정부에 구청(求請)하여 제작된 주문다완(注文茶碗)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문다완은 부산요(釜山窯)¹⁾ 개요 이전에는 김해(金海)에서 생산한 사례가 있고 부산요

1) 부산요(釜山窯): 1639년(仁祖17年) 개설되어 1717년(肅宗43年)까지 왜관(倭館)을 중심으로 있었던 가마(窯)를 말한다. 여기에는 구청(求請)에 의한 다완(茶碗)이 주 생산품이었으며 그밖에 다도와 관련된 도구들을 생산했다. 왜관을 중심으로 있었기에 왜관요(倭館窯)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료에서는 ‘요(窯)’라고 기록하고 있다. 『釜山窯と對州窯』의 저자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가 처음으로 ‘부산요’라는 명칭을 사

운영 시절에 양산 법기요(梁山法基窯)에서 이라보다완(伊羅保茶碗) 등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기요의 성격에 대하여는 현재 시굴조사는 진행되었고, 발굴조사가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고려다완이라는 명칭은 마츠야 다회기(松屋茶會記)에 처음 등장하였고 16세기 이후 일본 다도에 있어 확고한 위치를 점하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다완의 사용은 여러 다회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분류초인목(分類草人木)』에서는 중국 다기는 인기가 없고 고려다완이 유행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²⁾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고려다완은 애용한 사람의 이름을 취해 주코(珠光)다완, 젠코우(善好)다완, 산코우(三好)다완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려다완의 유입이 늘어나 기존의 호칭으로는 불편함이 있어 다인들이 마음대로 명칭을 부여해 사용하였다. 이처럼 현재 전래되어 있는 고려다완은 다도(茶道)와 관련되어 붙여진 명칭으로 다도의 도구로서 분류되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도자사의 분류와 연관되지 않는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구청의 개요와 17C~18C 일본에서 다완을 구청(求請)한 근거와 요구 주체에 대하여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어본다완(御本茶碗)이라 불리는 김해다완과 부산요 다완을 우리의 관점에서 ‘구청다완(求請茶碗)’이라 부르고자 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도자사적 관점에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고려다완을 도자사적 분류로 새롭게 정립하는

용했으며(1931), 『釜山窯の史的研究』의 저자 이즈미 초이치(泉澄一) 역시 ‘부산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1986). 본고에서는 현재 국제도시 부산(釜山)의 위상을 생각할 때 ‘왜관요’ 보다는 ‘부산요’라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2) 高麗茶碗研究會, 『高麗茶碗-論考と資料』, 川原書店, 2003, 81~95쪽, 表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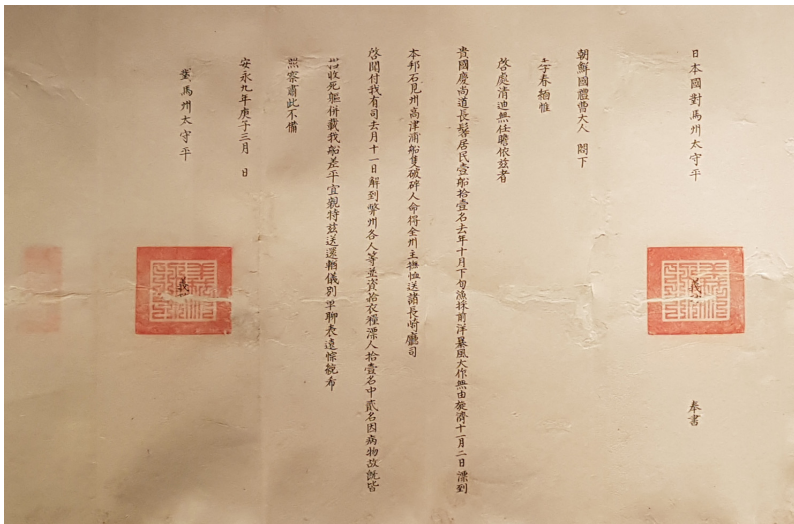
3) 박형빈, 「高麗茶碗의 日本傳來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3쪽.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도자의 우수성과 17C~18C 운영되었던 왜관의 부산요를 부각하여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알림과 동시에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II. 구청(求請)과 구청다완(求請茶碗)

구청다완(求請茶碗)은 17C~18C 두모포왜관과 초량왜관에 있었던 가마에서 만들어 일본으로 전래된 다완을 지칭한다. 이곳에서 생산된 다완은 구청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두모포왜관과 초량왜관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는 김해에서 생산된 사례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구청의 개념과 다완 구청에 관한 내용을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 다완 구청의 주체와 근거를 밝혀 우리의 관점에서 구청다완이라



〈사진 1〉 1780년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예조(禮曹)로 보낸 서계

불러야 하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

구청이란 일본에서 세견선을 보낼 때 특정 물품을 조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마도와 조선이 맺은 전통적인 외교관계에 근거하여 대마도주(對馬島主)와 바쿠후(幕府) 등이 필요한 물품을 조선에서 조달해 가던 무역 방식의 하나이다.

기유약조(1609) 체결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고 무역이 이루어지면서 구청이 발생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진상(進上), 회사(回賜), 공무(公貿) 이외에 별도로 물품을 요청하는 일을 가리켜 구청이라 한다. 일본에서 잘 생산되지 않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을 대마도가 간절히 요청하면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가능한 것은 허락하였다. 이에 조선 측에서는 구청을 증급(贈給) 혹은 증물(贈物)이라고도 불렀다.

일본 측이 요구하는 물품을 조선 측이 무상(無償)으로 지급하는 ‘좁은 의미의 구청’ 외에, 유상(有償)으로 지급하는 ‘넓은 의미의 구청’이 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청’을 흔히 구무(求貿)라고 부른다. 즉 구청에는 구무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구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측에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조선 측에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무에 해당된다. 역으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요청 자체는 구무이지만 결과는 구청인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일본 측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조선 측이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⁴⁾ 구청과 구무에 관한 사례를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1660년 경자년(庚子年) 4월 20일 동래부사 정태제(鄭泰齊)가 4월 14일에 성첩한 장계를

4)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謄錄(I)』, 2004, 4쪽.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금 바쳐온 훈도 윤성립(尹誠立)의 수본에, “당일 소인이 왜관에 갔더니 이른바 도금도왜(都禁徒倭)가 와서 소인을 보고는 말하기를 ‘저희가 나온 것은 오로지 공작미(公作米)를 운송하기 위한 일인데, 예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기에 동 물목을 베껴 써 가지고 나왔으니, 일일이 무역해 가겠다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 되, 이 일이 만분 긴급하니 유기장(鑪器匠), 사기장(沙器匠), 용기장(甕器匠) 등을 불러와 들여보내어 견양을 보여준 뒤에 밖에서 만들어 주거나 전례대로 왜관 안에서 구워 만들거나 상의하여 선처하며, 석대성(席帶星)도 예전부터 만들어 주는 규례가 있었으니, 대성(帶星)에 합당한 돌 및 기술자를 왜관 안에 아울러 들여보내거나 이런 모양으로 밖에서 만들어 주거나, 예사로 보지 말고 속히 마련하여 들여주어야 다음 달 열흘 사이에 비선(飛船)으로 들여보낼 계획이라 운운’ 하였기로, 동 물목을 베껴 써서 올려보내는 일로 수본한다”하였음. 동 왜인이 가지고 온 물목을 가져다 보니, 각양의 사기(沙器) 70넙(立)과 석대성 14개, 호육(虎肉), 호두(虎頭), 호안(虎眼), 호담(虎膽), 호경골(虎脰骨), 호설(虎舌) 각 1부와 대모(玳瑁) 붓자루 60개, 각양 유기(鑪器) 도합 62넙(立)인데, 상항의 물건은 그들이 비록 값을 주고 무역한다고는 말하지만, 부응할 즈음에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겠기에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 하였거니와, 이제 들으니 그들의 비선이 나온 의도는 실로 만분 절박하다 하는바 시종 방색하기는 어려운 듯하고, 사기와 유기 호육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순찰사에게 보고하여 본도에서 감당하여 찾아주려고 하며, 이른바 석대성은 돌이면서 돌이 아닌 것으로 남양(南陽)에서 채굴되는 옥과 같이 돌과 비슷하면서 돌이 아닌데, 찾아주면 저들이 필시 좋아할 것이니, 본도에 혹 산출되는 곳이 있거든 순영에 보고하며, 대모 붓자루는 그 길이가 근 4치라 하는데 해조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서 내려 보내주실 일임.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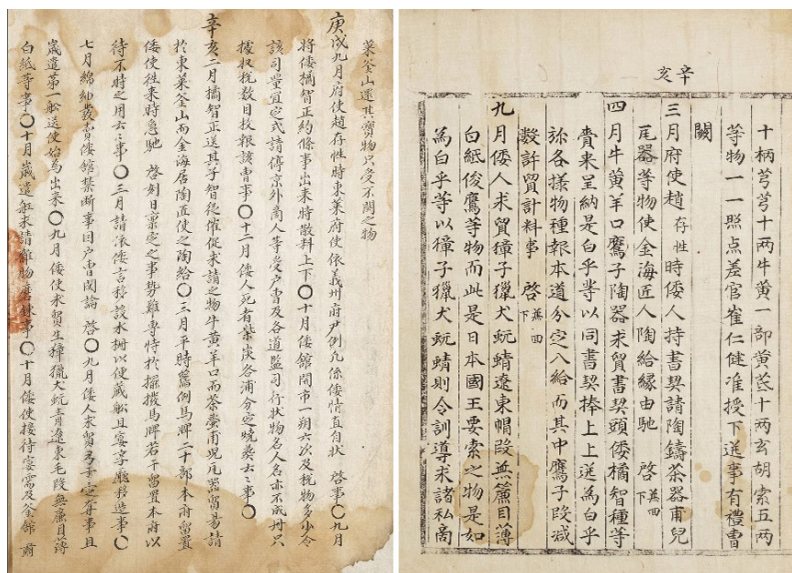
위 기록에서 “상항의 물건은 그들이 비록 값을 주고 무역한다고는 말하지만, 부응할 즈음에 그 폐단이 적지 아니하겠기에 역관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기어코 방색하라 하였거니와..”에서 구무에 관한 내용과 조선 측에서는 방색을 견지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에도의 집정 등이 구청하는 물건이 있다고 하기에..(중략) 전례대로 왜관 안에서 구워 만들거나 상의하여 선처하며..”에서 구청의 주체와 왜관 내에서 가마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인조 15년(仁祖 1637)에서 경종 4년(景宗 1724) 사이 왜인의 각종 구청에 관련해 동래부사,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狀啓)와 이에 관한 호조(戶曹) 및 비변사(備邊司)의 회답 내용이 『왜인구청등록』과 『변례집요(變例集要)』에 기록되어 있다.

기유약조(1609) 체결 이후 신해년(1611) 2월에 일본은 다완(茶碗) 공급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선에 구청(求請)하였다.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의 기록에 의하면 굴지정(橘智正)이 무역 담당자로 왔고 구청 물목에는 김해 장인을 특정해 다기(茶器), 보아(甫兒), 와기(瓦器) 등을 구청하였다. 같은 해 3월 『변례집요(變例集要)』에 왜인이 서계(書契)를 지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조선에서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김해부사에게 부탁하여 김해 도자기 장인에게 구청 물품을 만들도록 하라는 내용이다.⁶⁾

5)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謄錄(II)』, 2005, 80쪽.

6)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0001권, 奎貴9764, 002b-002b면. 辛亥二月, 橘智正送其子智從催促求請之物牛黃羊口而茶壺甫兒瓦器貿易請於東萊釜山而金海居陶匠使之陶給. 『變例集要』 0011권 003b면. 辛亥三月, 府使趙存性時, 倭人持書契請陶鑄茶器甫兒·瓦器等物, 使金海匠人陶給緣由, 馳啓. 無回下.



〈사진 2〉

〈사진 3〉 『변례집요』(變例集要)

『동래부접외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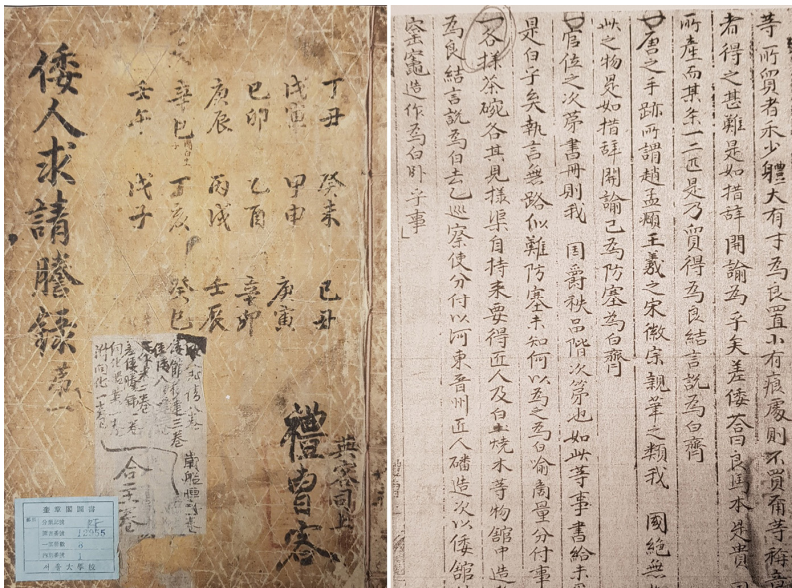
위 기록이 다완에 관한 최초의 구청이라 사료되며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서계(書契)를 지참하여 동래부로 구청하면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다완이 제작될 수 있었다. 위 기록에서 김해 장인을 특정했다는 것은⁷⁾ 대명물(大名物)인 장속할고대다완(長束割高台茶碗)과 오리베(古田織部)가 소장했었다는 할고대다완이 김해에서 제작된 것이기에 김해 장인에 관한 사전 정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⁸⁾

7) 주) 6에서 金海居陶匠使之陶給, 使金海匠人陶給緣由.

8) 후루타 오리베(古田織部)가 소장했었다는 전산기념관(畠山記念館) 소장 할고대다완과 향설미술관(香雪美術館) 소장의 대명물(大名物) 장속할고대다완(長束割高台茶碗)은 구청(求請) 이전의 김해산(金海産)으로 추정하고 있다. 家庭画報編, 『茶碗』, 世界文化社, 1982, 70쪽.

다음은 『왜인구청등록』에 나타난 다완에 관한 최초 기록으로 1639년 기묘년(己卯年) 8월 16일 역관 등의 수본 등서(謄書) 내용이다.

각양의 찻잔(茶碗), 각기 그 견양(見樣)을 저들 스스로 가져와서 장인과 백토(白土), 땔감 등을 구하여 관 안에서 조작하겠다고 말하거늘, 순찰사께서 분부하여 하동과 진주의 장인들이 번조(燔造)하기 위해 왜관 밖의 요(窯)에서 조작하기로 하였음.9)



〈사진 4〉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第一冊 기묘(己卯) 8월16일(八月十六日)

위 기록에서 대마번은 다완을 만들기 위해 조선에 백토와 땔감 등과 함께 하동과 진주의 사기장을 구청하였고 조선에서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는 내용이다. 또한 1639년에는 가마가 두도포왜관

9)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謄錄(I)』, 2004, 24쪽.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 경진년(1640) 5월 19일, 역관 홍희남(洪喜男)과 김근행(金謹行)의 수본에서 다완 구청의 근거와 요구 주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주가 말하기를 ‘부관(釜館)의 북쪽 담장 밖에 큰 길 있는데, 길은 높고 관(館)은 낮아서 왕래하는 사람이 관 안을 넘겨다보니, 이것은 비록 관계 앓는다 하더라도 보기에 부당하니, 다른 곳을 잘라 길을 만드는 것이 좋겠고 찻잔을 만드는 일에는 귀국의 사정에 폐단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지만, 대군(大君) 이하 대소의 장관들이 모두 그것을 구청(求請)하니 달리 대어 쓸 곳도 없어서 부득이하여 사람을 보내어 제조하는데, 지난해에는 공장(工匠) 및 각종의 사토(沙土)와 소목(燒木) 등의 물자를 자주자주 들여 주어서 감사하여 마지않았는데, 이번에 내려올 때 대군이 각양의 사기 견양을 요구하기로 역시 부득이하여 차인(差人)을 일특송선(一特送船) 편에 보내었으니, 이 뜻을 돌아가 동래에 고하여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먹급(覓給)하고, 솜씨 좋은 장인을 전례대로 들여보내 주시면 천만다행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답하기를..(중략) 또한 사기를 제조하는 한 가지 일은 지난해에는 민력(民力)의 다소를 피하지 않고 차왜가 말하는 대로 장인 및 사토 등의 물자를 넉넉히 들여보냈다. 그러나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영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그사이에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 이후로는 혹 사람을 보내더라도 사조(私造)를 크게 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¹⁰⁾

위 내용에서 대군(大君)은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天家光)를 말한다. “대군(大君) 이하 대소의 장관들이 모두 그것을 구청(求請)하니 달리 대

10)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謄錄(Ⅰ)』, 2004, 39쪽.

어 쓸 곳도 없어서 부득이하여 사람을 보내어 제조하는데..”에서 구청의 주체와 근거를 알 수 있다. 또한 “공무(公務)를 빙자하여 사사로운 영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그 사이에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에서 다완의 밀무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동래부사의 장계 기록을 보면 “백토(白土)의 운반은 극히 어려운데, 6, 7월 농사가 조금 쉬게 되는 것을 기다려 비로소 일을 시작할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장인과 백토는 가까운 각 관에서 전례대로 보내줄 것을 해조에 명하여 미리 분부하시며..”라고 하여 당시 조선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시기를 늦추었지만 일본이 구청한 것을 허락한 것이다. 또한 비변사와 예조에서 올린 계목을 보면 “왜인 구청의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지난해에도 이미 시행한 규례가 있고, 장인과 백토를 편리하고 가까운 고을에서 전례대로 보내어 줄 것이로되, 농사짓는 여가에 부역하도록 하는 일은 동래부사의 장계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일본의 구청을 조선 정부에서 허가한 것을 알 수 있다.¹¹⁾

『왜인구청등록』 경진년(1640) 10월 18일, 동래부사의 장계에 기록된 구청의 근거와 주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할 무렵에 또 말하기를 ‘찾잔을 구워 만드는 일은 곧 에도의 대군(大君) 이하 제장(諸將)들이 간절히 구청하는 물건이고, 도주가 심력을 다하는데, 전일에 단자를 올려 구청하고 이제 와서 보니 만든 것이 많지 않고 재료도 쉽지 않아 아직 일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닌데, 금년에는 겨울철에 이미 들었으니 말해도 무익하거니와, 명년에는 십분 유념해달라’ 하거늘, 답하기를 ‘금년에도 구을 흙과 찰감과 장인을 말하는 대로 정하여 주었는데, 만든 수량의 다과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매년 구워 만드는 것은 따라주기가 어려

11)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謄錄(Ⅰ)』, 2004, 45쪽.

을 듯 하지만, 그러나 말하는 바가 이러하니 마땅히 품보(稟報)할 계 획이라' 하였음.¹²⁾

위 내용을 보면 왜관에서 개요(開窰)는 쇼군(將軍) 이하 다이묘(大名) 들이 간절히 구청하고 이를 대마도주가 심력을 다하여 조선에 구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마도주가 참근교대(參勤交代)¹³⁾를 위해 에도(江戸)로 갈 때 쇼군을 비롯한 바쿠후의 유력층에게 진상하기 위한 용도와 바쿠후 측의 의뢰나 지시를 받은 경우라 보여진다. 이에 따라 구 청다완은 1639년~1677년까지 두모포왜관(豆毛浦倭館)에서 번조(燔造) 하였고, 초량으로 왜관을 이전한 후 1678년~1717년까지 초량왜관(草梁倭館) 내에 가마를 만들어 번조 하였다.

이처럼 왜관에서는 일본의 구청에 의한 자기를 생산했다. 일본에서 견본을 가져오거나 주문서에 치수 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왜관에서 생산 된 다완을 일반적으로 어본다완(御本茶碗)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주문 서보다 먼저 대마도주로부터 구청에 관한 서계(書契)가 조선에 도착해 야 했고,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서계가 위식(違式)된 경우에도 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식서계((違式書契) 문제로 구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왜인구청등록』 경오년 (1690) 5월 26일의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감사 오시대가 5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12)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膳錄(I)』, 2004, 53쪽.

13) 참근교대(參勤交代 산킨코타이)는 각 번(藩)의 다이묘(大名)를 정기적으로 에도(江戸)로 오게 함으로써 각 번에 재정적 부담을 가하고, 볼모를 잡아두기 위한 에도바쿠 후의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각 번은 도쿠가와가(德川家)에 반기를 들기가 힘들어 졌고, 도쿠가와가가 15대에 걸쳐 번영을 누리는 요인이 되었다. 참근(參勤 산킨)은 일정 기간 에도의 쇼군(將軍)에게 오고 가는 것, 교대(交代 코타이)는 여가를 받아 영 지에 돌아가 행정 사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관수왜가 비직 등을 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일전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왜인이 가져왔던 동래 부산으로 봉행들이 바친 서계가 잘못 쓴 곳이 있었기로, 그때 도중에 들여보냈는데 이제 이번 배편에 고쳐 써서 내어 보냈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거늘 이제 또다시 청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지난해부터 구워 만든 사기는 모두 예도에서 구하는 것으로 흙 색깔이 좋지 못하고 그릇이 매우 이지러졌기로, 도주가 절박하게 걱정하여 당초에 구워 만들던 왜인을 불러들이고 다른 왜인으로 바꾸었는데, 실은 만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봉행왜(奉行倭) 등이 어찌 감히 동래 영감 전에 서찰을 바치겠는가? 하물며 도주가 예도에 가 있으니, 예도에서 요청하는 것을 또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동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하여 곤양의 백토(白土) 22섬, 하동의 백토 13섬, 진주의 백토 22섬, 김해의 웅기흙(甕土) 15섬, 감색 흙(柿色土) 62섬, 경주의 백토 44섬, 울산의 약백토(藥白土) 55섬을 들여주되, 10말을 1섬으로 하여 속히 수송해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으며, 동 사기를 구워 만들 때 사용되는 땀감 역시 마련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음. (중략) 전 일에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흙 등을 요청한 서계는 전례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흙을 번거롭게 청하여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기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였는데, 동 서계를 고쳐 쓰지 아니하고 이전의 글을 칼로 긁어와서 바쳤으니, 서계 가운데 칼로 긁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어서 반드시 또 되돌려 물리칠 필요는 없지만,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본디 천박하고 모질어서, 이제는 이전의 서계를 새 서계라고 하여 모른 채 와서 바친 것을 가려서 깨뜨리지 않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농사일이 번거로운 가운데 요청한 사기 굽는 흙이 200여 섬이나 되어 민폐가 극히 우려되기로, 동 서계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물리쳤으며, 요구한 백토는 이렇게 수량이 많아서 그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편으로 엄하게 역관들을 신

칙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막으라고 하였거니와..(후략)¹⁴⁾

이처럼 다완의 구청은 엄격하게 관리되었고 왜인들의 왜관 밖 출입은 엄격히 금지¹⁵⁾되었기 때문에 역관(判使)들의 밀무역 독점이 생겼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 역사적 상황과 사료를 근거하여 왜관의 부산요에서 만들어진 어본다완을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구청에 의해 제작된 다완이기 때문에 ‘구청다완(求請茶碗)’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후 이 시기 김해¹⁶⁾와 왜관에서 생산되었던 다완의 성격에는 구청다완이라 부르며, 왜관에서 생산된 다완명에는 어본다완이라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하여 초기 와비차의 성립 과정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완명에 의한 고려다완의 분류를 도자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하여 분류하고자 한다.

Ⅲ. 고려다완의 분류

일반적으로 고려다완에 관한 연구는 문헌을 통한 사료적 연구, 유적

14) 부산광역시, 『國譯倭人求請膳錄(IV)』, 2007, 222쪽.

15) 약조제찰비(約條製札碑): 초량왜관(1678년~1876)은 조선과 일본 외교,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양국 상인의 접촉이 많아지고 밀무역과 거래가 금지된 품목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조선과 일본 양국이 약조를 맺은 뒤 그 내용을 간추려 한문과 일본어로 새긴 뒤 왜관 수문(守門) 앞에 세웠던 것이 약조제찰비다. 1. 왜관 경계 밖으로 넘어 나온 자는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사형에 처한다. 2. 왜채(倭債)를 주고받은 것이 발각되면 둘 다 사형에 처한다. 3. 개시(開市) 때 방에 몰래 들어가 밀무역을 하는 자는 둘 다 사형에 처한다. 4. 5일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공급할 때 아전·창고지기·하급 통역관 등을 때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조선인·일본인 범죄인은 왜관 문 밖에서 함께 형을 집행한다.

16) 구청에 의한 김해다완 즉, 어소환, 묘소, 도형, 주빈다완 등을 말한다.

과 유물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와 다도사적 연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근대 고려다완의 연구는 『부산요와 대주요(釜山窯と對州窯)』(1931)의 저자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의 발굴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시야 세이조(林屋晴三)의 『고려다완(高麗茶碗)』(1958)으로 이어졌고 이후 많은 양의 논문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대마도 종가(宗家)문서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즈미 초이치(泉澄一)의 『부산요의 사적연구(釜山窯の史的硏究)』(1986)에서는 17~18세기 부산요와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산요 연구에 기반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고려다완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고려 말의 청자와 조선 초·중기의 분청자기 그리고 연질·경질백자가 생산된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과의 비교 분석이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다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16세기를 전후해 조선 사발을 와비차의 다완으로 사용한 전용다완이 있다. 조선의 사발이 어떤 이유로 일본 다도에서 유행하게 되었는지 와비차의 성격과 조선 사발의 연역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다완은 반듯하지 않은 외형 속에 반듯한 형태의 균제미가 있고, 기교가 없는 듯한 무작위의 작행(作行)은 우리 미의 특징 중 하나인 무기교(無技巧)의 기교¹⁷⁾에서 대교약拙(大巧若拙)의 단순미(單純美), 평담미(平淡美)와 더불어 자연스럽고 소박한 한국인의 성품을 닮아 매우 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균제(不均齊)·간소(簡素)·고고(枯高)·자연(自然)·유현(幽玄)·탈속(脫俗)·정적(靜寂)이라는 와비차의 성격¹⁸⁾에 부합하였고 고려다완의 예술적 특징인 무작위의 여유로움은 선문화(禪文化)를 바탕으

17) 고유섭 저, 진홍섭 엮음, 『구수한 큰맛』, 다홍미디어, 2005, 47쪽.

18) 히사마츠 신이치(久松眞一) 저·김수인 옮김, 『茶道の哲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51~62쪽.

로 한 와비차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¹⁹⁾

둘째 기유약조 이후 일본에서 서계(書契)를 보내 주문한 주문다완이 있다. 주문다완은 일반적으로 김해(金海) 다완, 부산요(釜山窯) 다완, 법기요(法基窯) 다완으로 나눈다. 김해와 부산요에서 생산된 다완은 『왜인구청등록』,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 『변례집요』 등의 사료를 통해 구청(求請)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확인하여 17C~18C 두 곳에서 생산된 다완을 ‘구청다완(求請茶碗)’이라 제시하였다. 또한 부산요가 운영되었던 시기에 양산(梁山) 도공이 부산요에서도 활동한 기록은²⁰⁾ 부산요 다완과 법기요 다완에 나타난 제작기법의 유사점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부산요와 법기요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그리고 밀무역으로 유통된 판사다완(判使茶碗)은 많은 부분 양산 법기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¹⁾

1. 일본 연구자들의 고려다완 분류

현재 고려다완에 관한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는 방대한 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의하면 고려다완의 분류는 초기 전래된 당시에 만들어진 다완명(茶碗名)에 의해 분류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에도 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다완 종류명을 분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자기

19) 김인규, 「야나기무네요시(柳宗悅)의 조선다완론(朝鮮茶碗論)에 대한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9, 229쪽.

20) 奎章閣韓學研究院,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0001권, 奎賁9764, 060a-060b. <六月沙器燔造監役倭三名出來而館守倭言內上年燔造沙器土品不好江戶諸處多數見退非不知年年支煩而事勢如此又爲出來今番則所用白土瓮土柿色土白藥土黑藥土等物依數取給燒木始役之後每患不足比前優數斫給匠人則梁山金海上年使喚者三名招給云云事.> 양산과 김해도공이 부산요에서 활동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기록을 미루어보아 을사년(1665) 이후에는 부산요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조국영, 「조선후기 왜관(倭館)내 부산요(釜山窯)에서 활동했던 양산도공(梁山陶工)과 그 역할」(『양산신문』 2016.04.05. 신정윤기자).

(瓷器)의 역사가 풍부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자기의 생산 기술이 없었다. 임진왜란 때 피랍된 조선인 이삼평(李參平)에 의해 1616년 백자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²²⁾,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자기의 흐름 중 청자가 빠져있다. 청자에서 분청자기로 이어지며 발전했던 분청자기의 다양한 기법²³⁾과 연질백자에서 경질백자로 진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유약 조성과 환원 소성 등 다양한 기법들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것이 고려다완에 있어서 도자사의 흐름에 맞추어 분류하고 정립하는 한계의 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1951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연구자들의 고려다완 분류를 분석하여 분류 체계의 관점과 변화를 살펴본 후, 우리의 관점에서 명명한 ‘구청다완’의 용어를 사용하여 도자사의 흐름에 맞추어 고려다완의 분류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1) 미츠타케 타다나리(滿岡忠成), 코야마 푸지오(小山富士夫), 하야시아 세이조(林屋晴三), 오다 에이치(小田榮一), 아카누마 타카(赤沼多佳)의 고려다완 분류

『高麗茶碗-論考と資料』에서 김파망(金巴望)은 미츠타케 타다나리(滿岡忠成), 코야마 푸지오(小山富士夫), 하야시아 세이조(林屋晴三), 오다 에이치(小田榮一), 아카누마 타카(赤沼多佳)의 분류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²⁴⁾

22) 조용준, 『일본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 가마』, 도도, 2016, 225쪽.

23) 1. 무늬를 새긴 도구로 그릇 표면에 찍은 뒤 백토로 채우는 인화기법(印花技法) 2. 무늬를 파낸 뒤 백토를 감입(嵌入)하는 상감기법(象嵌技法) 3. 백토분장 후 무늬의 배경을 굵은 하얀 무늬만을 남게 하는 박지기법(剥地技法) 4. 백토분장 후 음각의 선 무늬를 나타내는 조화기법(彫花技法) 5. 백토분장 후 철사 안료(鐵砂顔料)로 그림을 그리는 철화기법(鐵畵技法) 6. 귀얄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빗질로 백토 분장을 하는 귀얄기법(一技法) 7. 백토물에 그릇을 담궈 분장하는 담금 분장기법(담병기법)

24) 高麗茶碗研究會, 『高麗茶碗-論考と資料』, 105쪽.

〈표1〉 高麗茶碗の大別

	新修茶碗全集 6 1951年 瀧岡	世界陶磁全集 7 1955年 小山	陶器全集 18 1958年 林屋	茶碗 2、3 1972年 小山・瀧岡	高麗茶碗 1991, 2年 林屋	唐物茶碗と高麗茶碗 1993年 小田	高麗茶碗 2001年 赤沼
第1類	高麗茶碗	倭乱以前	自然な味わいを持つ	第一類	粉青沙器系	注文以前の茶碗	
	雲鶴	井戸	井戸	井戸	狂言袴	雲鶴	雲鶴
	井戸	小井戸	三島	井戸脇	雲鶴	井戸	狂言袴
	各種の井戸 (蕎麦)	青井戸	刷毛目	蕎麦	三島	三島	三島
	(割高台)	井戸脇	小井戸	粉引	刷毛目	呉器	刷毛目
	刷毛目	そのほかの井戸	青井戸	雨漏	無地刷毛目	熊川	無地刷毛目
	熊川	熊川	小貫入	堅手	粉引	雨漏	粉引
	粉引	柿の帯	井戸脇	柔らか手	長石・灰釉系	堅手	堅手・雨漏堅手
	堅手	蕎麦	蕎麦	玉子手	井戸		雨漏
	斗々屋	雨漏	熊川	三島	雨漏	井戸	井戸脇
	柿の帯	堅手	堅手	刷毛目	雨漏堅手		蕎麦
	(各種)高麗	三島	雨漏	熊川	堅手		斗々屋
		刷毛目	粉吹	判使	五器手		柿の帯
		無地刷毛目	斗々屋	呉器	熊川		玉子手
		粉引	柿の帯	斗々屋	魚屋(斗々屋)		熊川
		呉器	玉子手	柿の帯	柿の帯		呉器
		雲鶴			玉子手		
		柔らか手			割高台		割高台
		斗々屋					
第2類	御本茶碗	倭乱以後	注文茶碗	第二類	注文茶碗系	見立・注文茶碗	初期注文茶碗
	彫三島	御所丸	御所丸	伊羅保	御所丸	魚屋	御所丸
	伊羅保	割高台	割高台	割高台	金海	柿の帯	伊羅保
	御所丸	伊羅保	伊羅保	御所丸(金海)	堅手	蕎麦	彫三島
	金海	金海	彫三島	筆洗	彫三島		金海
	立鶴	雲鶴	御本立鶴	金海(金海)	五器手(大半)		
	呉器	御本	絵御本	雲鶴	魚屋		
	半使	呉器	呉器	彫三島	玉子手		
	御本各種		狂言袴	御本(倭館)	伊羅保		
				御本立鶴(倭館)			
				絵御本(倭館)			
第3類		对州窯(倭館窯)	(後期)注文茶碗		御本茶碗系	注文茶碗	御本茶碗
			御本三島		伊羅保	御所丸	御本
			御本雲鶴		各種御本手	金海	半使
			半使			彫三島	
						伊羅保	
						半使・御本	

* 위 자료는 1951년부터 2001년까지의 자료이며, 가장 최근 자료인 아카누마 타카의 2019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전용다완: 운학, 광언고, 삼도, 쇠모목 무지쇄모목, 분인, 우루, 견수 우루견수, 정호, 정호협, 교맥, 두두옥, 시대, 웅천, 오기, 할고대
- 주문다완: ①어소환, 이라보, 조삼도, 김해 ②어본 ③반사²⁵⁾

25) 赤沼多佳, 『茶の湯の名碗 高麗茶碗』, 三井記念美術館, 2019, 150쪽.

- 見立てられた高麗茶碗: 雲鶴, 狂言袴, 三島, 刷毛目・無地刷毛目, 粉引, 雨漏, 堅手・雨漏堅手, 井戸, 井戸脇, 蕎麦, 斗々屋, 柿の帯, 熊川, 呉器, 割高台
- 日本向けに焼かれた茶碗: ①御所丸, 伊羅保, 彫三島, 金海. ②御本 ③半使

〈표2〉 표1에 게재된 일본 연구자들의 고려다완 분류

1	미즈타케 타다나리	고려다완	운학, 각종 정호, 교맥, 할고대, 쇠모목, 웅천, 분인, 견수, 두두옥, 시대, 고려
		어본다완	조삼도, 이라보, 어소환, 김해, 입학, 오기, 반사, 어본
2	코야마 푸지오	임진왜란이전	각종 정호, 웅천, 시대, 교맥, 우루, 견수, 삼도, 쇠모목, 무지쇠모목, 분인, 오기, 운학, 두두옥
		임진왜란이후	어소환, 할고대, 이라보, 김해, 운학, 어본, 오기
3	하야시아 세이조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다완	각종 정호, 삼도, 쇠모목, 교맥, 웅천, 견수, 우루, 분취, 두두옥, 시대, 옥자수
		주문다완, 후기 주문다완	어소환, 할고대, 이라보, 조삼도, 어본입학, 회어본, 오기, 광언고 어본삼도, 어본운학, 반사
4	코야마 푸지오, 미즈타케 타다나리	제1류	각종 정호, 교맥, 분인, 우루, 견수, 옥자수, 삼도, 쇠모목, 웅천, 반사, 오기, 두두옥, 시대
		제2류	이라보, 할고대, 어소환, 필세, 김해, 운학, 조삼도, 어본, 어본입학, 회어본
5	하야시아 세이조	분청사기계 장식·재유계	광언고, 운학, 삼도, 쇠모목, 무지쇠모목, 분인 정호, 우루, 우루견수, 견수, 오기, 웅천, 어옥, 시대, 옥자수, 할고대
		주문다완계 어본다완계	어소환, 김해, 견수, 조삼도, 오기, 어옥, 옥자수, 이라보 이라보, 각종 어본
6	오다 에이치	주문이전 다완	운학, 정호, 삼도, 오기, 웅천, 우루, 견수
		견립·주문다완 주문다완	어옥, 시대, 교맥 어소환, 김해, 조삼도, 이라보, 반사 어본
7	아카누마 타카	전용다완	운학, 광언고, 삼도, 쇠모목, 무지쇠모목, 분인, 견수 우루견수, 우루, 정호, 정호협, 교맥, 두두옥, 시대, 옥자수, 웅천, 오기, 할고대
		초기 주문다완 어본다완	어소환, 이라보, 조삼도, 김해 어본, 반사
8	아카누마 타카 (2019)	전용다완	운학, 광언고, 삼도, 쇠모목·무지쇠모목, 분인, 우루, 견수·우루견수, 정호, 정호협, 교맥, 두두옥, 시대, 웅천, 오기, 할고대
		주문다완	①어소환, 이라보, 조삼도, 김해 ②어본 ③반사

본 연구자의 고려다완 분류²⁶⁾와 2019년 아카누마 타카의 분류를 바탕으로 위 연구자들의 분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에서 첫째, 미츠타케 타다나리(滿岡忠成)는 1951년 『新修茶道全集 6』에서 고려다완과 어본다완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고려다완은 전용다완, 어본다완은 주문다완이라 사료된다.

둘째, 코야마 푸지오(小山富士夫)는 1955년 『世界陶磁全集 7』에서 임진왜란 이전과 임진왜란 이후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임진왜란 이전은 전용다완, 임진왜란 이후는 주문다완이라 사료된다.

셋째, 하야시아 세이조(林屋晴三)는 1958년 『陶磁全集 18』에서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다완(自然な味わいを持つ)과 주문다완 그리고 후기 주문다완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다완은 전용다완이라 사료된다.

넷째, 코야마 푸지오와 미츠타케 타다나리는 『茶碗 2,3』에서 제1류와 제2류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제1류는 전용다완, 제2류는 주문다완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하야시아 세이조는 1991년과 1992년 『高麗茶碗』에서 제1류~제3류로 분류했다. 제1류의 하위분류로 분청사기계와 장식·재유계로 소분류했고, 제2류는 주문다완계, 제3류는 어본다완계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분청사기계와 장식·재유계는 전용다완, 주문다완계와 어본다완계는 주문다완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오다 에이치(小田榮一)는 1993년 『唐物茶碗と茶碗高麗茶碗』에서 제1류 주문 이전 다완, 제2류 견립·주문다완, 제3류 주문다완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제1류 주문 이전 다완은

26) 권영은, 「轉用茶碗과 注文茶碗의 考察을 통한 高麗茶碗의 特徵」, 동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2.

전용다완으로 사료된다. 제2류 견립²⁷⁾ 주문다완은 분류명이 모호하며 현재 어옥, 시대, 교맥다완은 전용다완으로 분류된다.²⁸⁾ 제3류 주문다완의 분류는 주문다완이라 사료된다.

일곱째: 아카누마 타카(赤沼多佳)는 2001년 『高麗茶碗』에서 제1류 전용다완, 제2류 초기 주문다완, 제3류 어본다완으로 분류했다. 본 연구자의 분류와 비교하면 제1류는 전용다완, 제2류와 제3류는 주문다완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아카누마 타카는 2019년 『茶の湯の名碗 高麗茶碗』에서 전용다완과 주문다완으로 분류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다완에 관한 일본 연구자들의 분류는 대부분 편년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자마다 분류에 다른 견해가 있고 특히 주문다완의 분류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다. 아카누마 타카의 2019년 분류와 본 연구자의 분류를 바탕으로 일본 연구자들의 분류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본 연구자와 일본 연구자들의 분류 차이점

1	미즈타케 타다나리가 분류한 어본다완에서 조삼도, 오기
2	코야마 푸지오가 분류한 임진왜란 이후에서 할고대, 운학, 오기
3	하야시아 세이조가 분류한 주문다완에서 할고대, 조삼도, 오기, 광언고
4	코야마와 미즈타케가 분류한 제2류에서 할고대, 필세, 운학, 조삼도
5	하야시아 세이조가 분류한 주문다완류에서 견수, 조삼도, 오기, 어옥, 옥자수

27) 전용다완(轉用茶碗): 전용의 사전적 의미는 예정되어 있는 곳에 쓰지 않고 다른 데로 돌려쓰이다. 고려다완 중 조선의 일상용기가 일본다도(茶の湯)에 전용(轉用)된 것을 전용다완(轉用茶碗)이라 하며 같은 발음인 전용(專用)이라는 단어와 혼란을 피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용이라는 단어는 일본식 표기며 차후 이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일본어에는 같은 의미인 미타테(見立)라는 단어가 있으며 미타테(見立)는 용도가 다른 물건을 특정한 곳에 차용해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다완 중에서 전용다완이 여기에 속한다.

28) 주) 25 참고.

6	오다 에이치가 분류한 견립·주문다완에서 어옥, 시대, 교맥
7	아카누마 타카가 분류한 초기 주문다완에서 조삼도

<표3>에서 주문다완의 종류가 연구자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삼도다완²⁹⁾에 관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① 미즈타케 타다나리가 분류한 어본다완에서 오기.

오기다완이 다회기에 출현한 연대는³⁰⁾ 늦지만 대덕사 오기다완을 필두로 주문에 의한 다완이 아니기에 본 연구자는 전용다완으로 분류하였다.

② 코야마 푸지오가 분류한 임진왜란 이후에서 할고대, 운학, 오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김해산으로 추정하는 전산기념관 소장의 할고대다완과 향설 미술관 소장의 대명물(大名物) 장속할고대다완은 전용다완으로 분류한다³¹⁾. 또한 운학다완은 전용다완에 포함되는 고려청자의 운학인지, 왜관의 구청다완인 어본운학다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③ 하야시야 세이조가 분류한 주문다완에서 할고대, 조삼도, 오기, 광언고.

광언고 다완은 고려청자로 알려져 있다.³²⁾ 본 연구자는 광언고 다완을 전용다완으로 분류하였고 주문다완으로 분류된 것에 관한 오류를 기술한 바 있다.³³⁾

29) 조삼도다완은 성형 후 내외부에 바닥에 인화문을 찍고 몸체에 조각칼로 회원문(櫛垣紋)을 시문(施紋) 한다. 시문 후 백토로 상감하며 유약을 바르기 전에 화장토를 깎아 내기 때문에 검은 바탕에 흰 무늬가 돋보이게 된다. 제작기법은 삼도다완과 유사하며 조각을 더했다고 하여 조삼도다완이라 부른다.

30) 宗甫會書, 1631. 1.16. 初見: 高麗茶碗研究會, 『高麗茶碗 論考と資料』, 81쪽.

31) 주) 8 참고.

32) 小林公成, 『名碗』, 株式會社 世界文化社, 2001. p56. 小田榮一, 『高麗茶碗』, 淡交社, 2011, 80쪽.

33) 권영은, 앞의 논문, 41쪽.

- ④ 코야마와 미즈타케가 분류한 제2류에서 할고대, 필세, 운학, 조삼도.
‘필세’는 유격오기다완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격장군(遊擊將軍)이란 명나라의 군인 계급 중 하나로 임진왜란 때 출병한 심유경(沈惟敬)이 유격장군이다. 유격오기다완은 심유경이 사용했었다고 전해지며, 주문에 의한 다완이 아니기에 본 연구자는 전용다완으로 분류하였다.
- ⑤ 하야시야 세이조가 분류한 주문다완류에서 견수, 조삼도, 오기, 어옥, 옥자수. 아카누마 타카는 최근 자료³⁴⁾에서 견수다완, 오기다완, 옥자수다완을 전용다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어옥다완 중에는 센노리큐(千利休)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 오는 리큐어옥다완을 비롯한 어옥다완을 본 연구자 역시 전용다완으로 분류하였다.
- ⑥ 오다 에이치가 분류한 견립·주문다완에서 어옥, 시대, 교맥.
두두옥다완³⁵⁾, 시대다완, 교맥다완은 전용다완, 즉 견립 다완임에도 불구하고 오다 에이치는 견립·주문다완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다.
- ⑦ <표1>에 제시한 아카누마 타카의 2001년 분류는 2019년의 분류³⁶⁾와 차이가 없으며 2001년에는 주문다완을 초기 주문다완과 어본다완으로 나누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기 주문다완에서 조삼도다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일본 연구자들이 조삼도 다완을 주문다완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본 연구자는 양산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양산명분청사기대접(梁山銘粉靑沙器大椀)과 『양산도자의 귀적』³⁷⁾에 게재된 부산대학교 박물관

34) 주) 25 참고.

35) 두두옥 다완(斗斗屋茶碗)과 어옥 다완(魚屋茶碗)은 같은 다완의 다른 명칭이다.

36) 赤沼多佳, 『茶の湯の名碗 高麗茶碗』, 三井記念美術館, 2019, 150쪽. 주) 25 참고.

37) 양산시립박물관, 『양산도자의 귀적』, 양산시립박물관, 2016, 80~83쪽.

관 소장 양산명분청사기인화문대접(梁山銘粉靑沙器印花文大楮)에 근거하여 전용다완에 포함하였다.³⁸⁾

2) 하야시아 세이조(林屋晴三)의 고려다완 분류

<표1>의 세 번째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다완(自然な味わいを持つ)으로 정호, 삼도, 쇠모목, 소정호, 청정호, 소관입, 정호협, 교맥, 웅천, 견수, 우루, 분취, 두두옥, 시대, 옥자수로 분류하였다. 이는 현재 전용다완의 분류로 조선 사발이 와비차에 전용된 이유를 ‘자연스러운 맛을 지닌 다완’이라는 분류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문다완에 할고대, 오기, 광언고를 포함한 것은 그 당시(1958) 분류에 오류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표1>의 다섯 번째 1991년과 1992년에 분청사기계와 장식·재유계로 분류한 것은 도자기 본질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본다. 분청사기계로 광언고, 운학, 삼도, 쇠모목, 무지쇠모목, 분인을 포함했다. 앞서 1958년 분류에서 주문다완에 광언고를 포함한 것과 달리 분청사기계에 광언고를 포함하였고, 청자다완인 운학 역시 분청사기계에 포함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장식·재유계로는 정호, 우루, 우루견수, 견수, 오기, 웅천, 어옥, 시대, 옥자수, 할고대를 포함했다. 하지만 주문다완 분류에서 견수, 오기, 어옥, 옥자수가 포함된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는 오류라 사료된다.³⁹⁾

이와 같이 고려다완에 대한 일본 연구자들의 분류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편년에 의한 분류와 다완 종류명을 나열한 것으로 연구자마다 분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하야시아 세이조의 분류는 다도사적 접근이 아니라 도자사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독창

38) 권영은, 앞의 논문, 48~50쪽.

39) 주) 25 참고.

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분청사기제와 장식·재유계에서 그친 아쉬움이 남는다.

2. 도자사 관점에서의 고려다완 분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다완의 분류는 전래된 초기에 붙여진 다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다완을 주문에 의하지 않고 일본으로 전래된 전용다완과 주문에 의한 주문다완으로 대분류 하였다.

전용다완에는 초기에 전래되어 이름이 고착되었고 다른 다완에 비해 종류가 많다고 인정되는 정호다완 계열, 웅천다완 계열, 오기다완 계열과 도자사의 관점에서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 연질백자다완 계열, 경질백자다완 계열로 소분류 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다완명과 개략을 기술하였다.

주문다완에는 구청다완(김해 구청다완, 부산요 구청다완)과 법기요 다완으로 나누어 소분류 하였고, 아직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판사(判使)다완을 법기요 다완에 편입하였다. 또한 각각에 해당하는 다완명과 개략을 기술하였다.

1) 전용다완의 분류

① 정호다완 계열

정호다완 계열은 와비차 초기에 전래된 고유형으로 대정호, 소정호, 청정호, 정호협, 소관입이 있다. 정호다완의 특징으로는 첫째: 색상이 비파색일 것, 둘째: 다완 표면에 물레자국이 보일 것, 셋째: 굽 안팎으로 유약이 매화나무 껍질처럼 균열이 퍼져있을 것, 넷째: 굽은 죽절 굽일 것, 다섯째: 굽 안에 꼭지가 솟아 있을 것, 여섯째: 다완 표면에 입힌 유

약에 빙열이 있을 것, 일곱째: 다완 내면을 볼 때 깊은 느낌이 날 것.⁴⁰⁾ 이상의 일곱 가지 특징이 잘 갖추어야 하며 정호다완의 감상 평가 기준으로 여긴다. 일곱 가지 특징 중에 한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다완을 정호협이라 부른다. 청정호다완은 정호다완 계열 중에서 크기가 작은 편이지만 구연부는 대정호·소정호다완과 비교하면 많이 외반(外反)⁴¹⁾된 편이다. 유색(釉色)은 푸른색을 띠며 굽은 낮은 편이다. 소관입(小貫入)다완은 유약이 갈라져 만들어진 빙열이 잘게 나타나고 매화피는 없으며 굽은 정호다완에 비해 낮은 편이다.

② 웅천다완 계열

웅천다완 계열은 와비차 초기에 전래된 고유형으로 구연부는 단반(端反)⁴²⁾되었고 굽은 기형에 비해 큰 오목 굽으로 가장자리가 솟아있다. 내면이 깊은 편이며 차고임 자리에 내저원(內低圓)이 있다. 굽 주변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노태(露胎)⁴³⁾가 특징이다. 진웅천다완은 외형이 단정하고 귀웅천다완은 크기가 작은 편이며 성형이 거칠며 소성(燒成)중에 변화가 많은 편이다.

③ 오기다완 계열

오기다완 계열은 와비차 초기에 전래된 고유형이다. 형태는 목제기의 탕기 모양으로 굽이 높고 밖으로 벌어진 발(撥) 굽이 특징이다. 유약은 얇게 입혀졌고 색상은 후엽색이 대부분이지만 홍엽오기다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붉은빛이 많이 나타난다. 대덕사와 연관 있는 대덕사 오기다완, 제기와 관련 있는 추오기다완, 그림이 있는 회오기다완, 단풍

40) 권영은, 앞의 논문, 81쪽.

41) 외반은 몸체에서 구연부 쪽으로 사선인 형태를 말한다.

42) 단반은 구연부가 가장자리에서 밖으로 휘어진 형태를 말한다.

43) 굽 언저리, 허리 부분 혹은 굽, 또는 굽의 바닥에 유약을 입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색의 홍염오기다완, 크기가 작고 아담한 니오기다완, 필세형의 유격오기다완 등 종류가 많다.

④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에서 분청(粉靑)이란 분(粉)을 바른 청자라는 뜻으로 분청자 혹은 분청사기, 분청자기로 불린다.⁴⁴⁾ 이처럼 청자와 분청자기는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청자를 분청다완 계열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분청다완 계열의 형태는 대부분 발형(鉢形)이지만 무지쇄모목다완에서는 윤형(輪形), 분인다완에서는 완형(碗形)의 형태도 나타난다. 광언고다완 등의 청자다완을 제외하면 굽의 형태는 대부분 죽절 굽이다. 청자 다완은 고려시대의 상감 청자가 대부분이며 부산요 구청다완 중에서 <전용다완 재창작계열>에 나타난다.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에는 광언고, 운학, 삼도, 쇠모목, 무지쇄모목, 분인, 조삼도 등이 있다.

⑤ 연질백자다완 계열

연질백자다완 계열은 소성 온도가 높은 고령토 계통의 태토에 분청자기 계열의 낮은 온도에서 녹는 유약을 시유한다. 낮은 온도에 유약이 녹으면서 산화환원 소성의 반복에 의한 태토의 변화에 따라 완성된 다완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노란 태토에 산화 소성된 옥자수다완, 비파색 유약을 사용하지만 태토에 포함된 철분이 환원소성에 의해 청회색으로 나타나는 교맥다완, 굽 언저리를 까슬하게 깎았고 불완전한 소성으로 산화환원의 흔적이 나타나는 두두옥다완, 오랜 시간 사용하며 생긴 얼룩이 특징인 우루다완 등 연질백자 다완 계열에서는 다양한 변화의 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44)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학고재, 1996, 77쪽.

⑥ 경질백자다완 계열

경질백자다완 계열은 조선백자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대부분 환원 소성을 기본으로 하는 고온에서 제작되었다. 외형의 단단함이 나타나는 경질백자다완 계열은 초기 백자와 같은 유약 조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런 양식의 다완을 통칭하여 고려(高麗)라고 부른다. 제기 계열의 할고대 다완은 초기 백자 양식이 나타나고 굽이 높고 굽의 형태가 십자형 또는 일자형이 대부분이다. 장속할고대다완처럼 구연부 양면을 왜곡한 것과 퇴화된 제기 손잡이 형태가 남아있는 것도 있다. 시대다완은 허리가 볼록 나온 완형의 다완이다. 어두운 분청계열 태토에 옅은 유약을 시유하여 유약과 태토의 조화로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15세기 말 분청자기와 백자의 혼용 시대를 맞으며 분청자기의 다양한 기법이 탄생했으며, 태토에 비해 낮은 온도에 녹는 유약의 사용으로 연질백자의 탄생과 경질백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기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 만들어진 것이 전용다완이다.

〈표4〉 전용다완의 분류와 종류

전용다완						
분류	정호다완 계열	웅천다완 계열	오기다완 계열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	연질백자 계열	경질백자 계열
종류	대정호	웅천	대덕사오기	광언고	교맥	견수
	청정호	진웅천	추오기	운학	교맥내쇄 모목	우루견수
	소정호	귀웅천	진오기	삼도	두두옥	시대
	정호협		홍엽오기	쇄모목	우루	원주고려
	소관입		유격오기	무지쇄모목	옥자수	고수옥고려
			회오기	분인		할고대
			니오기	조삼도		

2) 주문다완의 분류

① 김해 구청다완

김해 다완은 두 종류로 나눈다. 첫째 임진왜란 이전에 전래된 전용다완으로 할고대다완 등이 있다. 둘째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로 조선과 일본의 국교가 재개되면서 조선 예조에 서계를 보내와 정식으로 다완 제작을 구청한 것으로 어소환다완, 묘소다완, 주빈다완, 도형다완 등이 있다.

어소환다완에는 백어소환다완과 철장(鐵漿) 칠을 한 흑어소환다완이 있다. 형태는 전용다완에 없는 답형(沓形)으로 그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오리배 양식의 다완이 견본으로 왔거나 그 양식을 주문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김해 사기장의 뛰어난 솜씨로 제작된 다완이다. 어소환다완의 특징인 답형은 다완을 성형할 때 심한 왜곡으로 비균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의 장화 혹은 나막신을 닮아서 붙여진 명으로 고려다완 중에서 어소환다완에만 나타난다. 몸체는 비균제적이며 굽은 6면 이상 다각(多角)되어 있다. 허리 아랫부분의 면취(面取)는 김해산(金海産)으로 추정하는 장속할고대다완에 있는 양식이며 제작기법이 계승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유약은 백색 불투명 또는 반투명 유약으로 시유한 옥연(玉緣)⁴⁵⁾의 구연부는 정형적이지 않고 굽 언저리는 유약을 시유하지 않은 노태(露胎)로 표현되었다.

그 외 묘소다완과 주빈다완의 유약 구성과 시유방법은 어소환다완과 유사하며 전용다완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반투명 유약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묘소다완과 주빈다완은 작의적인 왜곡이 나타나 있다. 묘소다완의 구연부는 비정형적 왜곡이 2.4cm로 매우 심하지만 묘소(猫搔) 문양에 나타난 고고미(枯高美)로 작위스러운 왜곡이 다소 완화되어 보

45) 옥연(玉緣)은 구연부가 밖으로 도톰하게 말려 있으며 굽은 실을 올려놓은 듯, 조금 튀어나온 테두리를 말한다. 옥자수다완과 어소환다완에 나타난다.

인다. 주빈다완은 완형의 구연부를 삼면으로 왜곡하였지만 주빈형(洲浜形)의 형태로 정착시켰다. 이처럼 김해 다완들은 자연스러움과 인위적 기교미를 통합하여 다시 자연스러움으로 회귀하였다고 회자된다.

② 부산요 구청다완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가 기유약조로 재개된 후 일본의 바쿠후와 번주들은 고려다완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결과 신해년(1611)에 김해로 다완을 구청하였고 기묘년(1639)에는 조선 예조에 서계를 보내와 정식으로 다완 제작을 구청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상감사는 원료, 사기장, 장작 등을 마련하여 왜관 밖에서 하동·진주 사기장에게 가마를 지어 다완을 만들게 하였다.

이것이 부산요의 시작인 것이다. 무오년(1678)에 두모포 왜관이 초량으로 이전하면서 가마와 생산 시설을 함께 옮겼으며 이후 정유년(1717)에 조선 조정의 비협조와 대마도 내부사정으로 폐요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부산요에서 생산된 구청다완을 첫째 어본다완 계열, 둘째 도공두명다완(陶工頭名茶碗) 계열, 셋째 전용다완 재창작 계열로 분류하였다.

첫째 어본다완 계열은 일본 다인들의 주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다완으로 당시 일본 다도의 성격과 정취를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전용다완에 비해 크기가 작아졌고 형태에 비해 키가 높아졌으며 굽과 굽 언저리를 정갈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와비차의 정취가 다소 약해진 것이 다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선 사기장의 뛰어난 솜씨 위에 일본 작품이 더해져 제작되었다고 사료된다.

둘째 도공두명다완 계열에는 현열다완, 무삼다완, 미평태다완이 있다. 부산요 전기 도공두(陶工頭)는 도자기 장인이 아닌 다인들이 도공두로 파견되었고 대포임재(大浦林齋), 선교현열(船橋玄悅), 중정무삼(中

庭茂三) 등이 있다.

현열(겐에츠 玄悅)은 정조이라보다완처럼 굽 내부를 소용돌이 문양으로 깎아 그 선이 굽을 거쳐 다완의 허리까지 연결하여 성형한 다완이 많다. 이는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다완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삼(모산 茂三)은 다완 내면에 한 줄로 귀얄 한 것이 많다. 이 양식은 법기요의 이라보내쇄모목다완과 판사편신체다완 등과 제작기법의 유사점이 많다.

미평태(야헤이타 彌平太)는 부산요 후기 도공두로서 앞선 도공두와 달리 다인이 아니며 아버지 송촌 군우위문(松村 軍右衛門)이 부산요에서 화공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미평태는 자연스럽게 도자기와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⁴⁶⁾ 미평태의 회어본다완과 회어본조결문다완의 형태는 단정하며 유백색 유약을 사용했고 구연부는 유격오기에서 볼 수 있는 필세형이다. 형태는 완형으로 당초문(唐草紋)과 조결문(早蕨紋)이 그려져 있고 굽 주변을 노태로 몸체의 면과 대비시켰다. 회어본편립다완은 주문서가 남아있는 작품으로 몸체를 왜곡하여 형태의 변화를 추구했으며 구연부 안팎에 거결문(鋸闕紋)을 청화로 그렸다.

셋째 전용다완 재창작 계열은 어본광언고다완, 어본운학다완, 어본쇄모목다완, 어본삼도다완, 어본오기다완 등이 있다. 운학청자다완과 어본운학다완은 청자다완으로 고려청자에 비해 문양이나 기법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했고 유약은 불충분한 환원소성으로 푸른빛이 약하게 발색되었다. 이는 미의 기준이 완벽성에서 와비 정취가 묻어나는 현상으로 변화였다고 볼 수 있으며 와비차가 추구하는 불균제의 미와 유현미가 표현되었다고 사료된다.

어본삼도다완은 구연부를 왜곡하거나 단순화하여 간결하게 처리했

46) 泉澄一 著,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270쪽.

다. 몸체의 빗살문은 파상(波狀)의 문양을 상감하기보다 농담(濃淡)을 주어 문양을 감춘 듯 유현미가 표현되었다. 회어본다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완 몸체에 그림을 그린 다완으로 일본적 정취의 도안들로 철화나 청화로 정교하거나 혹은 추상적으로 부산요에 파견된 대마도 화공이 그린 것이다.

부산요의 구청다완은 대부분 전용다완에 비해 크기가 작아졌고 형태에 비해 키가 높아졌으며 굽과 굽 언저리를 정갈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며, 부산요 후기로 갈수록 기형과 구연부를 작위적으로 왜곡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일본 내 다도의 취향과 관련된 것으로 와비차가 추구하던 성격이 다소 변한 것을 다완의 형태적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법기요 다완

법기요 다완은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법기리 창기마을 뒤편에 위치한 국가사적 100호의 요지에서 생산되었다고 추정하는 다완으로 도요지 내에 이라보다완, 오기다완, 판사다완 등의 사금파리가 발견되었다.⁴⁷⁾ 그러나 요지에 관한 고증된 기록과 자료가 많지 않아 연구가 부족하지만, 현재 시굴조사가 진행됐으며 발굴조사가 신청된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법기요에서 전래된 다완은 이라보편신체다완, 이라보내쇄모목다완, 정조이라보다완, 황이라보다완과 판사다완 등이 있다.

이라보편신체다완과 천종이라보다완은 제작 양식에 차이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유약이 시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라보편신체다완은 이라보 유약과 투명유약을, 천종이라보다완은 이라보 유약과 정호유약이 시유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두 종류의 유약을 한 작품에 표현한 양식은 전용다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47) 양산시립박물관, 『양산도자의 궤적』, 양산시립박물관, 2016, 134~143쪽.

이라보내쇄모목다완은 내면에 백토로 귀얄하여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부산요 생산의 구청다완인 무삼의 어본내쇄모목다완과 제작기법의 유사점에서 서로 영향이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

정조이라보다완은 굽 안이 와선형으로 깎여 붙여진 이름이며 굽에서 몸체로 연결하여 깊이 깎아낸 다완도 있다. 부산요 전기에 생산되었던 현열다완과 제작기법이 동일하며 이는 법기요 사기장의 부산요 차출설을 뒷받침하고 있다.⁴⁸⁾ 거칠고 어두운 태토에 회청색 유약을 얇게 시유하여 요변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굽은 대부분 죽절 굽이고 구연부는 산길형으로 울퉁불퉁하거나 왜곡된 것도 있다.

황이라보다완은 황색과 녹황색을 띠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이라보다완 중에 변화가 적은 편이며 분청다완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다완은 반사다완(半使茶碗)이라고도 하며 사신이 올 때 가지고 왔다는 의미가 있다. 판사(判使)는 일본에서 역관의 높임말로 조선시대 통신사 수행과 외교, 무역, 조·일 양국의 경조사 등의 교섭을 담당하는 최고 실무자인 역관을 지칭한 용어다. 판사다완은 부산요에서 생산된 구청다완과 비교하면 왜곡이 많지 않고 변화도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

현재 법기요에 관한 공식적인 사료는 발견된 것이 없으나 부산요 다완과 같은 양식이 발견되기 때문에 부산요와는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부산요에서 생산한 다완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했다면 법기요에서 생산한 다완은 통신사나 문위역관(問慰譯官)⁴⁹⁾이 사행할 때 증정하는 선물이나 판사들의 업무나 지위를 이용한 강매 등 밀수출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대일본 다완의 공급처였다고 사료된다. 이 부

48) 주) 21 참고

49) 참근교대(參勤交代)를 마치고 돌아온 대마도주를 위로하기 위해 조선에서 대마도에 파견하던 사신.

분은 현재 법기요의 발굴조사가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 논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라보다완은 거친 태토에서 강인함과 고고미가 있고 무작위의 작행이 나타난다. 이처럼 법기요 다완은 와비차가 지향하는 성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조선의 일상용기였던 전용다완과 달리 주문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추정하지만 전용다완에 버금가는 무작위의 작행은 법기요 사기장의 뛰어난 솜씨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판사다완은 왜관의 부산요가 운영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부산요 다완의 작풍이 있지만 전용다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인 도공두의 감독하에 제작된 부산요의 구청다완 보다 감독관 없이 우리 사기장들의 의지로 만든 판사다완에서는 무작위의 작행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5〉 주문다완의 분류와 종류

주문다완						
분류	김해 구청다완	부산요 구청다완			법기요 다완	
		어본다완 계열	도공두명 다완계열	전용다완 재창작 계열	이라보다완 계열	판사다완 계열
종류	어소환	어본	현열	어본운학	이라보	판사
	묘소	입학	무삼 내쇄모목	운학청자	정조이라보	판사 편신체
	주빈	역문	미평태 회어본	어본삼도	황이라보	회판사 할고대
	도형	회어본	미평태 조결문	어본백회 할고대	이라보 내쇄모목	
		회어본 조결문	미평태 회어본편립		이라보 편신체	

3. 고려다완 일람

『高麗茶碗-論考と資料』의 高麗茶碗 伝世品 一覽⁵⁰⁾에 다완명으로 분류되어 나열된 664점 고려다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6〉 『高麗茶碗-論考と資料』의 고려다완 전세품 일람

	다완명	개수	비고		다완명	개수	비고
1	운학(雲鶴)	5점		35	웅천(熊川)	10점	
2	운학통(雲鶴筒)	5점		36	웅천우루(熊川雨漏)	1점	
3	운학평(雲鶴平)	1점		37	진웅천(眞熊川)	7점	
4	광언고(狂言袴)	7점		38	귀웅천(鬼熊川)	12점	
5	삼도(三島)	6점		39	후웅천(후熊川)	1점	
6	예빈삼도(禮賓三島)	28점		40	어소환(御所丸)	12점	
7	분인(粉引)	25점		41	어소환흑쇄모목 (御所丸黒刷毛目)	5점	
8	쇄모목(刷毛目)	4점		42	김해(金海)	11점	
9	무지쇄모목 (無地刷毛目)	4점		43	어본(御本)	16점	
10	견수(堅手)	24점		44	어본우루(御本雨漏)	1점	
11	우루(雨漏)	6점		45	어본운학(御本雲鶴)	5점	
12	우루견수(雨漏茶碗)	9점		46	어본입학(御本立鶴)	6점	
13	할고대(割高台)	9점		47	어본판사(御本判使)	8점	
14	정호(井戸)	55점		48	어본삼도(御本三島)	2점	
15	소정호(小井戸)	34점		49	어본분인(御本粉引)	1점	
16	청정호(靑井戸)	28점		50	어본견수(御本堅手)	1점	

50) 高麗茶碗研究會, 앞의 책, 288~307쪽. 角川書店 출판 『茶の湯の美術館』 全三卷, 中央公論社 출판 『高麗茶碗』 全五卷, 淡交社 출판 『茶道美術全集 1・2』, 河原書店 출판 『唐物茶碗と高麗茶碗』에 수록된 고려다완을 정리하여 664점을 다완명으로 나열해 놓았다.

17	정호협(井戶협)	9점		51	어본쌍이(御本雙耳)	1점	
18	옥자수(玉子手)	12점		52	어본고족(御本高足)	1점	
19	교맥(蕎麥)	17점		53	현열(玄悅)	8점	
20	두두옥(斗斗屋)	50점		54	무삼(茂三)	7점	
21	이라보(伊羅保)	12점		55	미평태(彌平太)	3점	
22	황이라보(黃伊羅保)	19점		56	회어본(繪御本)	6점	
23	정조이라보 (釘周伊羅保)	35점		57	사어본(砂御本)	1점	
24	이라보편신체 (伊羅保片身替)	13점		58	판사(判使)	2점	
25	시대(柿の帶)	16점		59	회판사(繪判使)	1점	
26	조삼도(彫三道)	28점		60	회고려(繪高麗)	1점	
27	오기(吳器)	15점		61	초장초산문 (酢漿草散文)	1점	
28	홍엽오기(紅葉吳器)	8점		62	이대(餌袋)	1점	
29	대덕사오기 (大德寺吳器)	4점		63	편구(片口)	1점	
30	니오기(尼吳器)	2점		64	고려(高麗)	6점	
31	추오기(錐吳器)	9점		65	동고려(東高麗)	1점	
32	번장오기(番匠吳器)	2점		66	원주고려(遠州高麗)	1점	
33	유격오기(遊擊吳器)	2점		67	취묵(吹墨)	1점	
34	회오기(繪吳器)	1점		68	화수(和手)	1점	

고려다완은 청자에서 분청자기를 거쳐 백자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 만들어져 일본 다도에서 다완으로 사용되었다. 즉 청자·분청자기·백자의 다양한 형식과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하나의 도구에 이처럼 다양성을 가진 도구는 고려다완이 유일하다고 보며 우리 옛 장인들의 탁월했던 기술과 미적 안목 그리고 우리 도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위 660점 고려다완을 본 연구자의 분류에 맞추어 9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61.초장초산문(酌漿草散文), 63.편구(片口), 67.취묵(吹墨), 68.화수(和手)의 4개 다완은 확인할 수 없어 개수에서 제외했다.)

- 1) 정호다완 계열은 126점이며, 대정호 55점, 소정호 34점, 청정호 28점, 정호협 9점이다. 전체 660점 고려다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다완은 대정호다완이다.
- 2) 웅천다완 계열은 31점이며, 웅천 10점, 웅천우루 1점, 진웅천 7점, 귀웅천 12점, 후웅천 1점이다.
- 3) 오기다완 계열은 43점이며, 오기 15점. 홍엽오기 8점, 대덕사오기 4점, 니오기 2점, 추오기 9점, 번장오기 2점, 유격오기 2점, 회오기 1점이다. 전체 660점 고려다완 중에서 오기다완의 종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은 130점이며, 청자 18점, 삼도 27점, 분인 28점, 쇠모목 25점, 무지쇠모목 4점, 조삼도 28점이다. 청자다완은 고려청자이며 18점 중에는 운학 5점, 운학통 5점, 운학평 1점이다. 삼도에는 삼도다완 21점과 관사(官舍) 명이 있는 예빈삼도 6점이 있다.
- 5) 연질백자다완 계열은 85점이며, 교맥 17점, 두두옥 50점, 우루 6점, 옥자수 12점이다. 두두옥다완이 50점으로 적지 않은 수가 전세되어 있다.
- 6) 경질백자다완 계열은 68점이며, 견수 24점, 우루견수 9점, 시대 16점, 고려 10점, 할고대 9점이다.
- 7) 김해 구청다완은 28점이며, 어소환 12점, 흑쇠모목 5점, 김해 11점이다. 어소환다완 중에서 흑어소환을 흑쇠모목으로 명칭했다.
- 8) 부산요 구청다완은 67점이며, 어본 40점, 도공두명 18점, 전용다완 재창작 9점이다.

- 어본다완 40점 중에는 어본 16점, 어본우루 1점, 어본입학 6점, 어본판사 8점, 어본쌍이 1점, 어본고죽 1점, 회어본 6점, 사어본 1점이다.
- 도공두명다완 18점 중에는 현열 8점, 무삼 7점, 미평태 3점이다.
- 전용다완 재창작다완 9점 중에는 어본운학 5점, 어본삼도 2점, 어본분인 1점, 어본견수 1점이다.

9) 법기요 다완은 82점이며, 이라보 12점, 황이라보 19점, 정조이라보 35점, 이라보편신체 13점, 판사 3점이다. 전체 660점 고려다완 중에서 판사다완이 3점 게재되었다는 것은 판사다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사료된다.

위 660점 고려다완 중에는 전용다완 483점과 주문다완 177점으로 주문다완에 비해 전용다완의 개수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부산요에서 생산된 구청다완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려다완에 관한 일본 연구자들의 분류를 분석한 결과 편년에 의한 분류와 다도와 관련된 다완명에 의한 종류로 분류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도자사적 관점에서 고려다완의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17C~18C 김해 다완과 왜관의 부산요에서 생산된 다완에 관한 사료를 바탕으로 구청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밝혀 ‘구청다완(求請茶碗)’이라 명명한 것의 타당성을 확고히 하였다. 이는 우리 도자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다완을 포함한 고려다완을 통해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하지

만 고려다완은 일본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것과 우리 다도 문화가 융성하지 못한 점, 문화사적·예술적 가치에 관한 연구자들의 이해가 다르다는 점 등에 의해 다완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자의 차후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조선시대 세계 최고의 도자기 제작 기술로 만들어진 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다인들과 다이묘들을 매혹시켰고 와비차의 기틀을 공고히 했다. 하지만 임진왜란으로 국교가 단절되었고 고려다완의 공급이 끊어져 일본 다도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이후 기유약조 체결로 일본은 다완 공급에 관하여 정식으로 조선 정부에 구청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 부산의 왜관이 있다.

일본에서 자기(瓷器)의 시작은 임진왜란 때 피랍된 조선인 이삼평(李參平)에 의해 1616년 백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자기의 흐름 중 청자가 빠져있다. 청자에서 분청자기로 이어지며 발전했던 분청자기의 다양한 기법과 연질백자에서 경질백자로 진화하는 과정에 나타난 유약 조성 and 환원소성 등 다양한 기법들이 부족했다. 피랍된 조선 도공들에 의해 높은 수준의 백자에서 일본 자기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와비차의 정서에 가장 적합했던 조선 민요(民窯)에서 생산되었던 다완의 독창성·대담성·자유분방함을 왜관을 통해 다시 조선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이에 왜관에서 구청다완이 만들어졌고 현재 일본에서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다완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구청다완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 문화는 왜관, 일제강점기와 6·25사변을 거치며 발전되어 왔다. 조선시대 외국과의 교류에서 對중국 외교에 연행(燕行)이 있었다면 對일본 외교에는 조선통신사와 왜관이 있다. 왜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구청다완’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조·일 양국이 협동한 도자사에 유례가 없는 프로젝트였으며 그 산물인 ‘구청다완’

은 현재에도 조선 도자와 더불어 조선 예술의 위대성을 알리고 부산이라는 국제도시를 알릴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문화유산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 또한 왜관과 더불어 ‘구청다완’은 대일외교와 문화교류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사신을 맞이할 때 행했던 다례를 복원하고 ‘구청다완’의 재현과 다완이 사용되는 점다문화(點茶文化)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숨 쉬는 부산의 역사적·문화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부산 문화의 자긍심과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Ⅱ 참고문헌

1. 사료

- 『倭人求請膳錄』
- 『典客司別膳錄』
- 『變例集要』
- 『歲船鷹連膳錄』
- 『書契違式膳錄』
- 『東槎日錄』
- 『東萊府接倭狀啓膳錄可考事目錄抄冊』

2. 저서 및 논문

- 가드클락, 신광석 옮김, 『陶磁藝術의 새로운 視角』, 미진사, 1986.
- 강경숙, 『韓國陶磁史』, 예경, 2012.
- 김강일, 「조선후기 倭館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인규, 「야나기 무네토시(柳宗悅)의 조선다완론(朝鮮茶碗論)에 대한 고찰」, 미술사와 시각문화 2009.
- 권영은, 「轉用茶碗과 注文茶碗의 考察을 통한 高麗茶碗의 特徵」, 동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22.

권주영, 『부산 초량왜관요 출토유물 연구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41, 2021.

박형빈, 『“高麗茶碗”의 日本傳來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방병선, 『왕조실록을 통해 본 조선도자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5.

아사가와 노리타카, 최차호 옮김, 『부산요와 일본 다완』, 아트북스, 2012.

야나기 무네요시, 심우성 옮김, 『조선을 생각한다』, 학고재, 1996.

양산시립박물관, 『양산도자의 궤적』, 양산시립박물관, 2016.

유홍준·윤용이, 『알기 쉬운 한국 도자사』, 학고재, 2001.

윤용이, 『아름다운 우리도자기』, 학고재, 1996.

전기열, 『조선 예술에 미치다』, 아트북스, 2017.

조용준, 『일본도자기 여행 규슈의 7대 조선 가마』, 도도, 2016.

존 카터 코벨, 김유경 옮김, 『일본에 남은 한국미술』, 글을 읽다, 2008.

지상현, 『한중일의 미의식』, 아트북스, 2015.

허현정, 『조선후기 왜관요의 자원수급』, 『항도부산』 39, 2020.

滿岡忠成, 黒田領治, 小田榮一, 『茶碗』, 世界文化社, 1982.

家庭画報編, 『茶碗』, 世界文化社, 1982.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小田榮一, 『唐物茶碗と高麗茶碗』, 河原書店, 1993.

_____, 『高麗茶碗の分類』, 陶説479, 日本陶磁協會, 1993.

_____, 『高麗茶碗』, 淡交社, 1999.

高麗茶碗研究會, 『高麗茶碗-論考と資料』, 川原書店, 2003.

阿部秀一, 『高麗茶碗 井戸・粉引・三道』, 阿部出版株式會社, 2010.

赤沼多佳, 『茶の湯の名碗 高麗茶碗』, 三井記念美術館, 2019.

투고일 : 2022. 05. 23. 심사완료일 : 2022. 07. 11. 게재확정일 : 2022. 07. 14.

〈부록〉 고려다완 도판

정호다완 계열			
	대정호 무야정호	청정호 죽옥정호	소정호 소염
응천다완 계열			
	응천 백국	진응천 운정	귀응천
오기다완 계열			
	대덕사오기 개산	진오기 소창산	홍엽오기 국월
			
	유격오기	회오기	니오기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			
	광언고 량화통	이덕삼도	쇄모목 합보

청자를 포함한 분청다완 계열			
연질백자 다완 계열			
			
경질백자 다완 계열			
			

삼호분인

무지쇄모목

조삼도

교맥 진여당

교맥내쇄모목

두두옥 용천

리큐 두두옥

우루 사충

옥자수 박시

전수 동운

고수옥고려

시대

우루전수

원주고려

할고대

김해구청 다완	 김해 묘소	 어소환 고전고려	 주빈 등랑
부산요 구청다완 (어본다완 계열)	 어본	 어본 소창산	 어본입학 천세
	 어본역문 백운	 어본내쇄모목 천세	 회어본 조결문
부산요 구청다완 (도공두명 다완 계열)	 현열 어본	 현열 어본 마끼다즈야마	 무삼 어본내쇄모목
	 무삼 어본내쇄모목 송도	 미평태 회어본	 미평태 회어본 편립

부산요 구청다완 (전용다완 재창작 계열)	   어본운학 운학청자 둥운 어본삼도 백운
법기요 다완	   이라보편신체 량국 이라보편신체 천종이라보 정조이라보 포인    판사 판사편신체 봉래 회판사 할고대

* 본 도판은 2019년 도쿄 미츠이(東京 三井) 기념미술관의 특별전시회 도록 『茶の湯の名碗 高麗茶碗』을 인용하였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Goryeo-Dawan and Waegwan's Request-Dawan

Kwon, Yeong-Eun

The term request(求請) refers to the act of requesting Joseon to procure certain goods whenever Japan sent a trading ship(歲遣船) to Joseon, and it was one of the trade methods used to procure the items needed in Tsushima Island (對馬島) and Bakufu(幕府) from Joseon based on the traditional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sushima Island and Joseon.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were normalized after the Treaty of Kiyu(己酉約條 1609),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umed, with Japan making a request to Joseon. The act of Japan asking Joseon for certain goods in an unofficial way rather than via official trade (公貿) was called a request.

The Joseon government tended to comply as much as possible with requests from Tsushima Island for items that were not produced or difficult to obtain in Japan. Thus, a request from Japan was also called a donation to Japan on the side of Joseon.

『倭人求請謄錄』 and 『變例集要』 contain detailed records on requests such as replies from Bibyeonsa(備邊司) to requests as well as the Janggye (狀啓) posted by the governors of Dongnae and Gyeongsang in relation to various requests made by Japanese people. After the Treaty of Kiyu, Japan made an official request to Joseon for the supply of Dawan.

According to 『東萊府接倭狀啓謄錄可考事目錄抄冊』, in February 1611, GyuljiJeng (橘智正) came as a Japanese trade officer to make a request with

a list of items asking for Dawan from a specific potter in Gimhae. It is recorded in 『變例集要』 that in March of the same year, a Japanese trade officer brought a diplomatic document(書契) requesting the above items. The request was that the governors of Dongnae and Busan in Joseon should ask the governor of Gimhae to have a pottery craftsman produce the above items.

What the basis of the request for Dawan was and who made the request are recorded in detail in the document on May 19, 1640 written by the translators Hong Hee-nam(洪喜男) and Kim Geun-haeng(金謹行) as well as in the Janggye(狀啓) on October of the same year written by the governor of Dongnae. The above records show that Bakufu's Shoguns(將軍) or Daimyos(大名) eagerly wanted to have kilns open(開窯) in Waegwan(倭館) and that Tsushima Island actively made the request to Joseon.

It is likely that the Tsushima Lord would offer the items to the Shogun and other influential people when he went to Edo(江戸) for Chamgeun shifts(參勤交代) or he received a request or instruction for the items from Bakufu.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records, Dawan could be produced with the permission from the Joseon government based on a request from Japan to Dongnaebu with a diplomatic document.

It is known that porcelain production in Japan began with white porcelain in 1616 by Yi Sam-pyeong(李參平), a Korean who was kidnapp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For this reason, the flow of porcelain in Japan lacks celadon(靑瓷). This means that the flow of Japanese porcelain does not include various techniques used to produce Buncheong porcelain that developed from celadon to Buncheong porcelain, and various techniques such as glaze composition and reduction firing(還元燒成)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evolving from soft white porcelain to hard white porcelain.

Since the history of Japanese porcelain began with the highest level of white porcelain by the kidnapped Joseon potters, Japan tried to find the originality, boldness, and free spirit of the Joseon folk kilns that were thought to be most suitable for the sentiment of Wabi tea(わび茶) in kilns located in Waegwan, Joseon. In this way, kilns were built and operated in Dumopo Waegwan from 1639 to 1677, and in Choryang Waegwan from 1678 to 1717.

As such, porcelains were produced for a request in Waegwan. And Dawan produced in Waegwan is generally called Eobon-Dwan(御本茶碗) because the order sheet from Japan specified the dimensions of Dawan in detail.

However, it is argued in this study that considering the historical situation at the time, it would be appropriate to call this Dawan Request-Dawan(求請茶碗) because it was produced at the request of Japan.

So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call Dawan produced in Gimhae and Waegwan during this period Request-Dawan and use the existing term Eobon-Dawan for Dawan produced in Waegwan.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Goryeo-Dawan using the above terms and to present its new classification.

Key words: Goryeo-Dawan, Request-Dawan, Eobon-Dawan, Joseon-Bowl, Choryang-Waegwan.

